

제주시 탑동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Preliminary Study for the Waterfront in Jeju Topdong

김형준*

박정근**

Kim, Hyoung-Jun

Park, Chung-Keun

Abstract

Jeju Topdong is a seashore but there are no relations to the waterfront. Since Topdong was developed and reclaimed by the capitalistic system so that topdong have a lot of problems as a waterfront. First of all, Topdong has no water-familiar as a waterfront that is because of high level concrete breakwater. And also Topdong has no identity in seashore buildings which are composed by fish restaurants, seashore theater, shops, hotels and otherwise buildings. From the above critical mind, in this study look to process of reclamation of Topdong and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To recover water-familiar of Topdong, this study examine the case study on abroad waterfront cases and refer to these abroad cases for establishing desirable waterfront model of Topdong. From the analysis, this study propose the waterfront elements and schematic alternative plan for Jeju Topdong in order to recover the water-familiar as a waterfront and a seashore.

키워드 : 제주 탑동, 수변공간, 수변공간 요소, 친수성

Keywords : Jeju Topdong, Waterfront, Waterfront Elements, Water-familiar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주도는 바다라는 자연요소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탐라국 시대부터 오랜 역사를 가진 제주시의 경우에도 산지천과 해안은 도시의 발생 및 성장의 축이었다. 그러나 산지천과 해안으로 형성된 제주시의 친수성은 난개발과 도시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으며, 해녀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태계의 보고였던 해안가는 매립되어 시민의 일상과 유리되었다.

제주시의 중심 하천인 산지천은 1965년 복개되어 제주 시민의 일상적인 친수공간에서 유리되어 사라졌다. 또한 제주시민의 반대 속에 진행된 1980년대 말 제주시 탑동의 매립과 개발은 이러한 친수공간의 유리화 파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물과 가까운 제주도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물과 유리된 생활을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되었다.

1996년 시작되어 2002년 완성된 산지천 복원은 시민들에게 물과 어우러진 제주인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산지천 복원 이후 친수공간에 대한 시민

들의 요구와 생태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개발논리 아래 행해진 탑동의 매립과 개발의 역사를 다시 짚어 볼 필요가 있으며, 시민의 일상과 함께 할 수 있는 수변공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수변공간으로서 제주시 탑동이 가진 문제점을 통해 향후 수변공간으로서 나아가야 할 지표 제공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변공간으로서 탑동이 가진 문제점으로 드러내기 위해 탑동의 개발과정과 현재의 상황을 중심으로 수변공간으로서 탑동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자본주의의 개발논리에 따른 탑동의 개발은 이미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개발논리에 의한 탑동의 수변공간은 현재 상황에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탑동의 개발과정과 지역 여론을 통해 분석 및 정리하였다.

탑동이 지향해야 할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해외의 수변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탑동에 적용가능한 요소들과 지표들을 분석하였다. 해외사례는 본 연구의 연구자가 직접 해외에서 답사하고 조사한 내용으로 한정하였다. 문헌이나 기타 자료를 통해 해외의 우수한 수변공간 사례를 정리 할 수 있지만, 향후 후속연구의 실증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을 위해 본 연구자가 직접 답사한 사례들

* 정희원,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공학박사

** 정희원,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건축사

(교신지자, pck0801@jejunu.ac.kr)

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해외사례 중 이탈리아 나폴리와 코모, 중국의 와이탄 공원 지역 등은 2007년에 답사 및 조사하였으며, 일본은 2008년에 답사 및 조사하였다. 이외 안겔의 계획안과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는 최근에 이루어진 해외 사례로서 답동의 수변공간에 지표가 될 수 있는 계획안과 사례라는 점에서 선정하여 분석 및 정리하였다. 연구대상지인 답동은 200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답사 및 조사하였다.

1.3 수변공간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답동의 수변공간에 대한 선행 연구나 보고서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지역과 바다와 관련하여 수변공간에 대한 연구는 부산 지역에 일부 연구되어 있다. ‘자갈치 지역 워터프론트 환경 조성을 통한 부산 도심부 재활성화 연구’, ‘해안 야간경관 개선방안 연구(부산 영도)’, ‘부산 워터프론트에서 바다낚시시설계획에 관한 연구’ ‘워터프론트로서 해수욕장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 등이 지역의 수변공간에 대한 선행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의 부산의 해안 수변공간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참조가 된다. 그러나 친수성을 가지고 있는 부산의 해안과 달리 친수성과 유리된 답동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수변공간의 일반적인 공간과 물리적인 연구로는 ‘워터프론트의 물리적 계획방향에 관한 고찰’, ‘도시 수변공간의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수변공간으로서 가져야할 물리적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들의 내용 중 답동에 적용가능한 요소들은 4장을 통해 분석 및 정리하였다.

답동의 수변공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답동과 관련된 연구로는 ‘제주시 답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용도 규제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향후 답동에 건설되는 건축물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제주시 산지천 수변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는 제주의 수변공간에 대한 유일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산지천이 바다가 하천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산지천이 답동의 수변공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답동의 매립과 개발과정

1984년부터 답동의 매립과 개발과정은 사업자와 유관기관의 개발논리에 좌우되면서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전개과정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에 따라 제주시 답동의 매립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시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개발논리에 의해서만 진행되었다.

주된 이유는 당시 제주시 답동 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민간개발업자가 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매립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에 첨부된 주민동의서도 허위로 밝혀졌으며, 매립 면허 신청서도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공

유수면매립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에 내주면서 특혜시비가 불거졌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보상문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역의 반발은 더욱 커졌고, 이로 인해 제주도 전역에서 답동 불법 매립 면허 취소 운동이 확산되었다¹⁾. 이러한 제주도민들의 반대와 시민운동 속에서 1986년 11월 승인된 답동의 매립은 1987년 7월 매립공사가 착공되어 1991년 12월에 완료되었다. 답동은 1991년 8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매립 후인 1992년 7월에 답동 공유수면매립지 도시설계기본구상과 시행지침이 마련되었으며, 1997년에는 답동 공유수면매립지 도시설계재정비 기본구상과 재정비시행지침이 수립되었다²⁾. 이 과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답동 공유수면 매립과정과 내용

일자	매립과정 및 내용
1984. 7. 6	민간사업자인 제주해양개발주식회사가 건설부에 답동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함
1984. 8. 13	매립면적을 두 배 이상 늘린 165,463m ² 의 변경신청서를 제주시에 제출함
1984. 9. 6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공문을 제주시가 건설부에 제출함
1984. 9. 26	건설부는 당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 중이며, 이 계획에 매립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을 사유로 매립계획을 반려함
1984. 10. 4	제주도는 건설부에 답동 공유수면 매립을 도시 기본계획과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재요청함
1985. 4. 25	매립 기본 계획 결정(경제장관회의) 매립 면적: 165,000m ² (4월 30일 고시됨)
1985. 5. 7	제주개발건설사업소가 답동 매립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함
1985. 5. 20	답동 매립지 165,000m ² 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안이 신문에 공고됨
1986. 5. 22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답동 매립지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외시킴
1986. 8. 12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제출함
1986. 9. 11	제주도는 기본계획변경신청 내용 중 매립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공공용지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및 보완하라는 것으로 반려함
1986. 9. 25	제주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1일 건설부 고시로 제주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승인됨(전체 165,000m ² , 상업지역 99,000m ² , 녹지지역 66,000m ²)

- 1) 조성윤, 개발과 지역주민 운동: 제주시 답동 개발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6권3/4호, 1992. 12, pp. 83-90,
- 2) 박철민, 강군완, 제주시 답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용도규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권 11호, 2002. 11, pp. 190-191

탐동의 공유수면이 매립된 후 도시설계지침에 따라 탐동에는 공원, 광장, 특급호텔, 관광호텔, 야외공연장, 놀이동산 등이 들어섰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은 수변공간의 특성, 지역적 정체성, 도시경관 등 도시에서 수변공간이 맡아야 할 역할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탐동의 매립과 개발이 수변공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80년대 일방적인 개발논리 하에 진행된 결과이다. 현재 제주시 탐동에서 수변공간의 친수성 대신 삭막한 콘크리트 장벽을 보아야 하는 것도 위와 같은 무분별한 매립과 개발의 결과이다.

3. 수변공간으로서 탐동의 현황과 문제점

3.1 탐동의 현황과 문화

과거 탐동은 '탐바리'라는 제주바다로 해녀들이 수산물을 채취하는 장소였다. 이곳은 수심이 낮고 검은 현무암들이 흩어져 있어 각종 어패류와 어류가 풍부한 곳이었다. 지리적으로는 제주시의 중심부의 바로 앞바다에 해당한다. 탐동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산지천과 제주항이 있고, 서쪽에는 한천의 하류인 용연이 있다. 제주시를 관통하는 병문천이 비록 건천이기는 하지만 현재 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천과 용연은 탐동과 함께 제주시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수변공간들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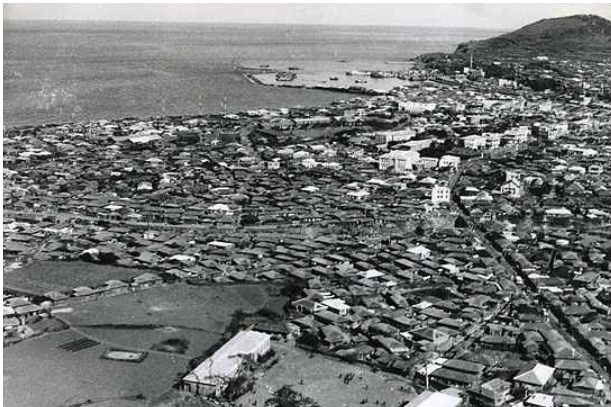


그림 1. 1950년대 탐동과 제주시(탐동 매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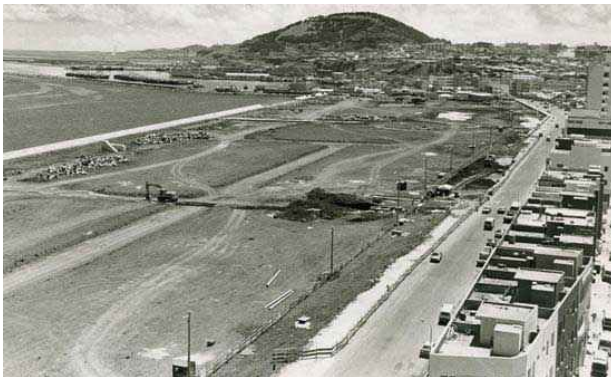


그림 2. 1980년대 말 탐동 매립 당시의 사진



그림 3. 탐동의 주요건축물과 시설현황

산지천은 제주읍성 내에 유일하게 있었던 하천으로 조선시대부터 1950년대까지 제주시민의 생명수 역할을 하였다. 1950년대 초까지도 제주시민들은 대부분의 생활용수를 용천수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지천 주변은 1950년 6·25 동란과 4·3 항쟁을 겪으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산지천은 개발사업에 의해 1965년 복개되었다가 1996년 8월부터 2002년 5월까지 6년여의 기간을 거쳐 복원되었다(그림 4, 5 참조).

용연은 용이 놀던 자리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이 용이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용연은 기암절벽과 상록수, 석벽과 물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영주 10경의 하나로 꼽혔다. 현재 산지천과 용연에는 음악분수, 산책로, 정자, 구름다리,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하였다(그림 6 참조).



그림 4. 1950년대 산지천



그림 5. 산지천, 현재



그림 6. 용연, 현재

지리적 위치로 볼 때 탐동은 제주시의 중요 수변공간인 산지천과 용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세 개의 수변공간의 중심에 해당하지만 실제의 환경은 셋 중에서 가장 나쁘다.

3.2 수변공간으로서 탐동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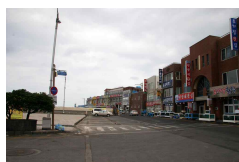
제주 지역 여론을 살펴보면 수변공간으로서 탐동에 대한 지역민의 불만과 탐동의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대한 지역신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수변공간의 역할과 특성에 대한 탐동의 비교 분석

지역신문 기사일자	기사 제목	기사 내용 중 탐동의 문제점 지적 내용
제주일보 2002.8.30	블록 툭툭, 자전거 랑	제주시가 수습역원을 들여 조성한 탐동테마 관광거리의 시설이 기능을 상실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제민일보 2007.9.5	제주를 새롭게 디자인하자, 경관이 미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행정당국은 바다에 접해있음에도 바다가 보이지 않는 탐동의 문제점을 의식이라도 하듯이 과거 10여년간 탐동 콘크리트에 색깔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즉, 탐동이 물이 보이지 않는 친수공간으로 둔갑했다는 데도 행정은 10년간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한 채 임시 방편적인 행태를 보여온 것이다.
제주일보 2007.12.4	탐동 관광자원화 말로만	탐동이 콘크리트에 가로막혀 물이 보이지 않는 친수공간으로 둔갑됐는데도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한 제주시가 기본적인 관광자원화 용역 비조차 확보하지 않는 등 말로만 탐동관광거리 조성을 외치고 있다.
한라일보 2009.4.22	제주사회 어떻게 변했나	제주시 도심의 명물이었던 탐동 바닷가는 추억속의 공간으로 남았다. 매립공사를 시작해 그곳에 콘크리트 도로가 들어서 바다 조망권을 가리고 있다. 탐동 매립으로 옛 제주시 다움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지역신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수변공간으로서 탐동은 콘크리트 방파제로 인해 친수성을 전혀 느낄 수 없으며, 현재의 시설들도 수변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탐동의 수변공간은 단지 바다에 면한 지역일 뿐이다. 이에 대한 제주도민의 불만이 높고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지만, 행정의 무관심 속에 수변공간으로서 탐동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변공간으로서 탐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탐동의 수변공간 현황과 문제점

탐동현황	수변공간으로서 문제점
	길이 1,257m, 높이 2.0m 콘크리트 방파제
	탐동의 콘크리트 방파제는 매립의 시작 지점인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끝 지점인 횃집 밀집지역까지 이어져 있다. 탐동 전체를 막고 있는 방파제로 인해 시민들이 주로 활동하는 수변공간에서는 바다를 조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탐동에서는 친수성을 전혀 느낄 수 없다.
	산책로에서만 조망 가능한 탐동의 바다
	바다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네 개의 계단을 올라가 목재데크의 산책로에 이르러야 한다. 산책로의 바다 조망도 해안과 어우러진 것이 아니라 단절된 바다이다. 바다의 시작이 자연스러운 해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방파제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바다는 단지 시각적인 요소일 뿐이다.
	탐동 동쪽 횃집 밀집지역의 근경, 원경
	탐동 동쪽에 위치한 횃집 밀집지역의 횃집과 상가들은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바닷가에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지역의 난립한 건물들과 조화롭지 못한 건물들은 수변공간으로서의 정체성과 지역적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형성된 탐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탐동 내에서 친수성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다. 수변공간 내의 친수성은 수변공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수면이 보이고 실제로 수면에 다가가서 물과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은 수변공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물의 색깔과 온도, 수면을 가로질러 오는 바람과 태양광의 반사, 수면의 파도와 소리 등은 수변공간의 가축

성을 극대화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수변공간에 대한 친근감과 풍요로움을 느끼게 한다³⁾. 탑동에서 이러한 친수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은 탑동이 수변공간으로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탑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볼 때, 탑동은 물리적인 수변공간일 뿐 실질적으로 수변공간이 가져야 할 특성 및 요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가장 큰 문제는 콘크리트 방파제이다. 콘크리트 방파제로 인해 친수성 뿐만 아니라 생태적 친환경성도 탑동은 가지고 있지 않다. 방파제는 높은 파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설치되었지만, 수변공간이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이 방파제는 반드시 제거되거나 바뀌어야 할 요소이다.

또한 탑동에는 수변경관을 형성하는 건축물들도 조성되어 있지 않다. 탑동 서쪽 끝에 위치한 라마다프라자 호텔이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 지역의 바다 경관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 탑동 내 입지한 해변공연장, 대형할인마트, 호텔, 놀이동산 등의 주요건축물은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접할 수 있는 건축물이며, 몇몇 상업건축물들은 미관상 좋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건축물들로 인해 탑동에서는 도시경관에 대한 유의미한 요소들도 찾을 수 없다.

4. 탑동의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요소

4.1 적용가능한 수변공간 요소 분석

수변공간은 물을 매개로 형성되므로 수역의 상태, 규모에 따라 그 특성과 역할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변공간은 물과 사람의 접점으로서의 점적역할, 연속공간으로서의 선적역할, 확장성을 갖는 수면에 의한 면적역할을 하고 있다⁴⁾. 이러한 수변공간의 역할과 특성을 탑동과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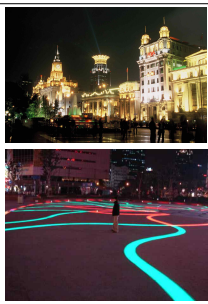

표 4. 수변공간의 역할과 특성에 대한 탑동의 비교 분석

수변공간의 역할	수변공간의 특성	탑동의 수변공간
점적역할	수변공간이 가진 친수성을 사람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공공 공간과 수변공간과 사람의 접점을 이룬다.	사람이 직접적으로 물과 만나거나 친수성을 느낄 수 없다. 탑동광장은 수변공간이 아닌 일반적인 광장일 뿐이다.
선적역할	육지와 물의 경계를 이루면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한다. 도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지역과 지역, 공공공간과 친수공간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면적역할	수변공간의 배후지역과 일체가 되어 지역의 정체성을 생산하는 새로운 공간을 형성한다.	배후의 낙후된 시설과 건물들의 혼재로 지역 정체성뿐만 아니라 수변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3) 한주영, 오덕성, 워터프론트의 물리적 계획방향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2권 1호, 2002. 4, pp.375-378,
4) 진윤정, 김종인, 도시 수변공간의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1권 2호, 2001. 10, pp.187-190

<표 4>의 비교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탑동은 수변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탑동은 강이나 하천이 아니라 해안과 바다에 면한 수변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해안이나 바다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탑동은 해안과 바다에 접한 수변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특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적 요소의 도입이 필요하다.

표 5. 적용가능한 탑동의 수변공간 요소 분석

해외사례	공간적 특성	공간적요소
	나폴리는 그 지역의 대리석을 이용한 방파제를 넓게 조성하여 바다에 대한 조망과 친수성을 확보하였다. 광장이 없어 공간은 협소하지만 친수성이 높은 세계적인 수변공간이다.	친수성 자연환경요소
	이탈리아 피오의 경우, 물에 시민들이 직접 닿을 수 있도록 하고 배후에도 분수 등의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물과 친수성과 자연환경적 요소를 극대화 하였다. 또한 피오라는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위해 수변공간 배후의 건축물을 전통적인 건축양식으로 조성하였다.	친수성 자연환경요소 지역 정체성
	중국 상해의 와이탄공원 지역은 수변공간의 친수성뿐만 아니라 근대건축물에 야간 경관조명과 광장의 바다 조명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도시의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친수성 지역 정체성 도시 연속성 도시 경관
	요코하마 항만터미널은 도시에서 이어지는 지형은 그대로 목재데크로 연결하여 도시의 연속성과 도시경관, 지역적 정체성을 극대화 하였다. 또한 목재데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수변공간을 조성하였다. 바다에 면한 수변공간 특성을 가장 잘 이용했다.	친수성 자연환경요소 지역 정체성 도시 연속성 도시 경관

수변공간으로서 탑동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공간적 요소는 친수성의 회복이다. 바다에 면하고 있으면서도 바다를 조망하거나 접할 수 없다는 것은 수변공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자연환경적 요소이다. 탑동의 방과제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광장은 화강암 재질의 돌로 바닥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탑동은 전체적으로 회색조의 칙칙한 도시 공간이 되었다. 이는 자연친화적인 수변공간과는 유리된 특성이다. 따라서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친수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 요소는 도시의 연속성의 확보이다. 한라산과 제주시로 이어지는 완만한 경사의 도시 지형은 탑동의 방과제에 이르러서 완전히 단절된다. 완만하게 이어지는 제주시의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탑동의 수변공간은 방과제가 아닌 연속성을 살린 공간적 요소의 도입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도시의 경관과 지역의 정체성을 위한 요소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탑동의 무분별한 획집과 콘크리트의 회색 건물들은 탑동의 이미지와 지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적, 형태적 도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탑동이 수변공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변공간이 가져야할 공간적 요소들을 갖추어야 한다. 탑동이 가져야할 수변공간의 공간적 요소들은 해외의 수변공간 사례와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탑동이 향후 나아가야할 공간적 지표들도 찾을 수 있다. 해외 사례를 통해 탑동에 적용가능한 수변공간요소를 정리하면 위의 <표 5>와 같다.

4.2. 탑동의 수변공간을 위한 계획 개념

수변공간으로서 탑동이 회복해야 가장 중요한 특성은 친수성이다. 탑동의 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우선 요소는 1,267m에 달하는 콘크리트 방과제를 제거하거나 바꾸는 것이다. 콘크리트 방과제를 바꾸지 않는 한 탑동에서 수변공간으로서의 친수성은 확보할 수 없다.

또한 탑동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쉼다거나 기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공간구성요소도 필요하다. 탑동과 같이 도시의 수변공간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덴마크 건축가 안겔은 도시와 물이 상호 소통하는 공간 계획을 제시한다.⁵⁾

안겔의 이론과 방법은 명료하다. 수변공간은 물과 공간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요코하마의 항만터미널과 수변공간은 위의 개념과 방법을 적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그림 7 참조).



그림 7. 수변공간 계획 개념, 안겔(GEHL Architects)
투시도 : 덴마크 올보르그 도시수변공간계획, 2007
평면: 아일랜드 빅토리아 선착장 수변공간 계획, 2007

1995년 전 세계 건축가가 참여했던 요코하마 여객터미널 설계경기와 그 계획안은 탑동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 현상설계는 기존의 요코하마 항에 새로운 여객터미널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미 존재하는 부지가 사이트로 주어졌으며, 이 터미널을 국제적인 터미널로 계획할 뿐 만 아니라 요코하마 시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는 수변공간과 공공시설로 만드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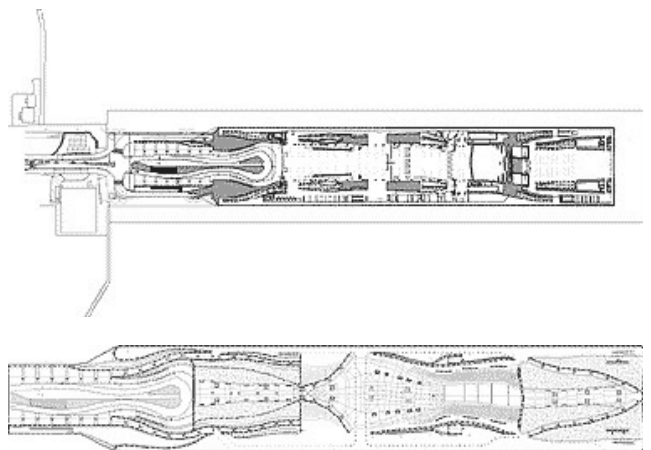


그림 8. 요코하마 항만터미널 전경과 지상층, 옥상층 평면도, 2002

5) www.gehlarchitects.com

요코하마 항만터미널 현상설계에서는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이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었다. ‘庭港口’(ni-wa-minato)로 제시된 프로그램을 말 그대로 항구에 정원을 만드는 것이었고, 이 정원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수변공간이 된다는 개념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2002년 완공된 당선작은 도시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터미널의 지붕 위까지 시민들의 동선을 끌어 들었으며, 터미널의 입구에서 지붕까지 이어진 완만한 곡선의 바닥에는 목재데크와 잔디를 깔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쉴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하였다.

2008년 완공된 노르웨이의 오슬로 오페라하우스의 경우에도 물과 닿는 지면을 자연스럽게 높이면서 하나의 인공대지를 조성한 사례로서⁶⁾ 안겔의 이론이나 요코하마 항만터미널과 동일한 개념과 방법으로 수변공간을 조성한 사례이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콘크리트 방파제로 막혀있는 탐동의 공간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더라도 향후 어떻게 조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중요한 지표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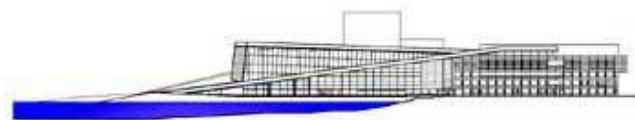


그림 9. 노르웨이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전경과 단면도, 2008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수변공간의 계획개념과 방법은 탐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시수변공간으로서 변모할 수 있는 계획의 지향점이 될 수 있다. 탐동의 수변공간 계획을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많은 연구인력과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변공간계획에 앞서, 현재 나타난 수변공간으로서 탐동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를 비교해 볼 때 탐동의 수변공간이 나아가야 할 계획개념은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콘크리트 방파제로 막힌 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6) www.davidgrindleyarchitects.c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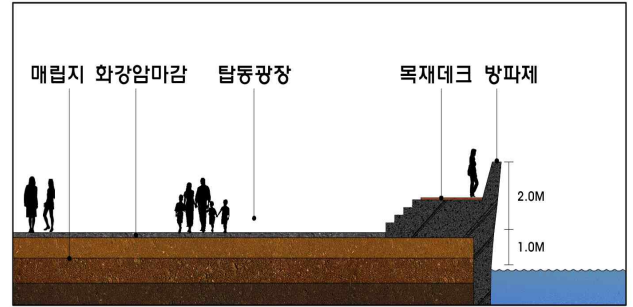


그림 10. 현재 제주시 탐동의 공간

<그림 10>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탐동은 콘크리트 방파제로 인해 바다를 조망할 수도 느낄 수도 없다. 곧 친수성의 측면에서 볼 때 결코 수변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콘크리트 방파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변공간으로서 탐동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친수성의 회복만을 위해 콘크리트 방파제를 해체할 수는 없다. 바람과 태풍의 영향이 많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으로 고려할 때 방파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탐동의 콘크리트 방파제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친수성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해외 사례 중에서 요코하마 항만터미널과 노르웨이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요코하마 항만터미널의 경우는 탐동에 적용가능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요코하마 항만터미널에 사용된 인공지반을 개념을 탐동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념적으로 볼 때 현재 콘크리트 방파제는 유지하면서 방파제의 높이까지 인공지반을 만드는 것이다. 이 때 방파제의 바깥쪽 곧 바다쪽으로 인공지반을 확장하는 것은 아니며 방파제의 상부에 데크 형식의 인공지반을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조성된 인공지반을 통해 시민들이 움직일 수 있으며, 바다에 대한 조망과 친수성을 일정부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현 조성된 인공지반의 하부는 문화나 상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도식화 하면 <그림 11>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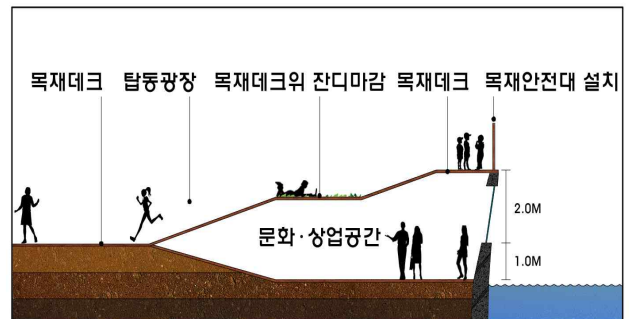


그림 11. 수변공간 요소를 활용한 탐동의 공간계획 개념도

<그림 11>은 콘크리트 방파제를 유지하면서 친수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개념도이다. 이것은 해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향후 많은 연구와 인력

이 투입될 경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수립이 가능하다. 문제는 탐동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제주도민과 행정의 의지이다.

앞에서 언급된 <그림 11>의 개념도와 함께 도시수변 공간에 대한 해외의 선진 사례를 통해 탐동이 지향해야 할 수변공간의 계획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수성의 회복을 위해 방파제 상부 끝까지 인공 지반을 만들어 한라산에서 탐동으로 이어지는 도시의 지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도시의 연속성도 회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연스럽게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친수성도 회복할 수 있다.

둘째, 조성된 인공지반을 목재데크로 만들고, 그 위에는 잔디광장 등 정원과 같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잔디광장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쉬거나 활동할 수 있어 바다와 연계된 친수성의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하부에는 문화, 상업 공간을 조성한다면 새로운 도시수변공간의 기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탐동 배후의 낙후된 힛집과 건물들을 도시경관적 측면에서 리노베이션 하는 것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제주라는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리노베이션 이전에는 앞에서 언급된 인공지반의 하부를 공간화하여 이를 문화나 상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공유수면매립으로 파괴된 과거의 탐동 수변공간은 수변공간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친수성의 부재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탐동에서 바다로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콘크리트 방파제를 변경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콘크리트 방파제 위로 인공지반을 만들어 시민들이 바다에 대한 조망과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탐동 배후의 낙후된 건물들을 도시경관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재생 또는 재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전의 탐동은 이제 회복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에서 더 나은 수변공간의 조성은 가능하다. 본 논문은 탐동의 친수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 기초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으며, 제시된 공간계획 개념도를 통해 향후 행정과 지역민의 탐동에 대한 논의의 촉발과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후속 연구에 대한 기대효과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변공간으로서 탐동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건축과 도시분야에서는 최초로 탐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목재데크를 활용한 인공지반의 구

성과 잔디광장의 구성 등은 향후 탐동이 친수성과 도시의 연속성을 갖는 계획의 개념과 지향점이다. 이것을 배치계획이나 평면계획 등의 구체적인 공간계획 등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기초연구로서 본 연구가 가진 한계이며, 이것은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1. 제주도, 제주도50년사 상·하권, 2005.
2. 조성윤, 개발과 지역주민 운동: 제주도 탐동 개발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6권3/4호, 1992. 12, pp.83-90
3. 박철민, 강군완, 제주도 탐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용도 규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권 11호, 2002. 11, pp.190-191
4. 한주영, 오덕성, 워터프론트의 물리적 계획방향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2권 1호, 2002. 4, pp.375-378
5. 진윤정, 김종인, 도시 수변공간의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1권 2호, 2001. 10, pp.187-190
6. 이한석, 이명권, 박건, 부산 워터프론트에서 바다낚시시설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11호, 2001. 11, pp.29-38
7. 강봉준, 제주도 산지천 수변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0, pp.23-86
8. 이정우, 양윤재, 자갈치 지역 워터프론트 환경 조성을 통한 부산 도심부 재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3, pp.13-23
9. 이한석, 이명권, 오상백, 정원조, 해안 야간경관 개선방안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5, pp.175-181
10. 정순원, 우신구, 워터프론트로서 해수욕장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7. 12, pp.113-124
11. www.gehlarchitects.com
12. www.davidgrindleyarchitects.co.uk

(접수: 2009.10.10, 심사완료: 2009.11.11)